

사회

‘오락가락’ 버스승강장

문화전당→전남대병원 방향, 설치 한달도 안돼 이전...재설치 추진

상인들 원상복귀 서명운동 광주시 “공청회 따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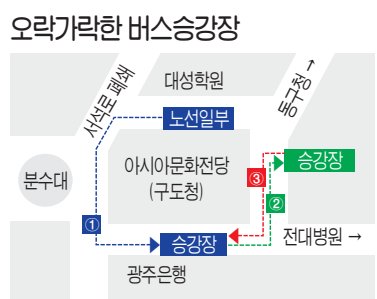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있던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지 한 달도 안돼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옮겨져 승객과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에서 전남대병원 방향 30m 지점에 설치·운영 중이던 버스 승강장이 지난 9일 동구청 인근의 한 병원 앞으로 위치가 바뀌었다.(그림)

이 승강장은 애초 문화전당 건립에 따라 서석로가 폐쇄되면서 지난해 12월 12일 신규로 설치됐으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3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기습’ 이전됐다. 결과적으로 대성학원 건너편에서 버스를 탔던 시민들은 한 달 사이 승강장을 두 번이나 옮겨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승강장을 경유하는 버스는 철단09, 금호36, 지원45, 지원51, 금남55, 금남59, 문흥80, 첨대95, 송정98, 지원150, 지원151, 지원152 등 12개 노선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두 번째 이뤄졌던 승강장 이전과 관련해 사전·사후 공지를 하지 않은 데다 시청 홈페이지의 버스승강장 정보 코너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 곳에서 버스를 이용해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갑작스런 승강장 이전 조치로 인해 기존 승강장 인근 상인들은 “추가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며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기존 승강장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박모(51)씨는 “버스 승강장의 유무에 따라 상권의 활성화 여부



1 서석로 폐쇄에 따라 일부노선 승강장 신규설치
2 대성학원 학생 동구청 방문 주민 반발 따른 이전
3 기존 승강장 인근상인들 반발 신규 설치 예정

가 크게 엇갈리는 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또 “기준에 승강장을 이용했던 시민들과 상인 등 500여명으로부터 ‘승강장 원상복귀’ 서명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승강장을 동구청 인근으로 옮긴 것은 광주여고 학부모와 대성학원 원생,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라며 “최근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애초 승강장이 있던 곳에 추가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노선 가운데 절반인 8개 노선을 점차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여고는 오는 3월 서구 화정동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 지난해 12월 서석로 폐쇄에 따라 금남로를 통해 대성학원 방면으로 가던 버스 승강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승강장을 설치해 생긴 불편에 대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그러나 승강장이 이전과 관련,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공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옆에 설치됐던 버스 승강장(흰색 점선 부분·전남대병원 방향)이 설치된 지 채 한 달도 안돼 인근 한 병원 앞으로 옮겨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월내동 고인돌 유적서

한반도 최대 비파형동검 출토

길이 43.4cm

여수시 월내동 삼촌마을 고인돌 유적에서 기원전 10~9세기 것으로 보이는 국내 최대 크기인 43.4cm짜리 청동기 비파형동검(사진)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동북아시아학연구소(소장 이영문)는 18일 “여수 국가산업단지(GS칼텍스공장) 확장부지 일대 지석묘 유적 5곳을 조사한 결과 이 동검과 함께 비파형동검 3점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크기의 비파형동검은 세 조각으로 파손돼 부장됐지만 완형 복원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최대 크기였던 상주 출토품(42cm)보다 1.4cm가 길다. 또 그동안 발굴된 것 중 가장 길이가 우수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에서 비파형동검은 대부분 조각 형태로 출토되며, 완형은 부여 송곡리 석관묘와 여수 적량동 7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2점 뿐이다.

학계에서는 일종의 의식으로 동검을 부러뜨려 매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곳에서 완형 석검(돌칼) 6점, 돌도끼 11점과 총 247기에 달하는 옛 건축물의 흔적인 유구(遺構) 247기도 함께 출토됐다.

또 이들 유적이 발굴된 지석묘는 길이 586cm, 폭 450cm, 두께 316cm로 무게가 92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문 소장은 “여수반도 일대에서 그동안 출토된 비파형동검만 16점에 달한다”며 “비파형동검이 주로 출토되는 중국의 랴오닝(遼寧)성 못지않은 유물 집중도를 보여 주고 있어,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엔 민생치안 필요없나...

경찰 정원 광주 14·전남 30명 감축 경기도에 재배치 추진 우려 목소리

경찰청이 수도권의 치안 수요 확충을 위해 광주와 전남 등 전국 지방경찰청의 정원을 500명 가량 감축키로 해 일선 시·군의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지방청 정원을 507명 감축키로 하고 해당 지방청별로 정원 감축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청과 전남청은 각각 14명, 30명에 대한 정원 감축안을 작성하고 있다. 경찰서 별로는 광주 동부서 4명, 북·남부서 각 3명, 서부서 2명 등의 인원이 줄게 된다.

경찰청의 정원 조정은 최근 인구가 늘어난 경기지역에 대한 치안 수요 충족을 위해 경찰의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청의 이번 방침을 놓고 광주와 전남 등 지방경찰청의 민생치안 약화와 사기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방의 정원 감축은 강화경찰청장이 강조해온 ‘뿔뿔리’ 치안서비스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전남 경찰은 지난해부터 기존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하는 등 밀착형 치안체제 확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47분 달돋이 09시 29분 달질 21시 29분

날씨도 오락가락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흐려지겠다.

지역	날씨	최고기온	최저기온
광주	맑은뒤 흐림	0/14℃	
목포	맑은뒤 흐림	1/21℃	
여수	맑은뒤 흐림	4/13℃	
완도	맑은뒤 흐림	1/12℃	
구례	맑은뒤 흐림	-5/2℃	
애남	맑은뒤 흐림	-2/13℃	
장흥	맑은뒤 흐림	-2/12℃	
고흥	맑은뒤 흐림	-3/13℃	
순천	맑은뒤 흐림	0/12℃	
영광	맑은뒤 흐림	-2/12℃	
진도	맑은뒤 흐림	0/13℃	
전주	맑은뒤 흐림	-2/13℃	
남원	맑은뒤 흐림	-6/13℃	
옥산도	맑은뒤 흐림	6/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0.5~1.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1.0~2.0m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04:04 09:3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16:37 21:5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여수 11:22 04:5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23:31 17: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7/10	3/5	-3/1	-5/2	-5/5	2/7

강추위 끝났다

북극 이상 고온 진정 내일 大寒 그리고 비

지난해 12월 이후 수시로 우리나라에 엄습했던 강추위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8일 ‘을 겨울 한파 분석 및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북반구 이상 한파와 폭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이 진정돼 6년 만에 찾아온 한파에 버금가는 추위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열대 중 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올라가는 엘니뇨 모도키가

그 세력을 남은 겨울 동안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엘니뇨 모도키가 세력을 유지하는 동안 서태평양 필리핀 동부 해상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속적인 온난다습한 기류가 유입된다.
한편, 기상청은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광주·전남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낮 기온이 1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 종일 영상권을 댈 도는 등 포근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22일부터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중·고 수석교사 선발

광주·전남 36명 등 333명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중·고 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광주·전남 각 18명 등 총 333명(초등

179명, 중등 163명)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가 2008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연구 활동비 지급, 수업시간 경과 등의 혜택을 준다.

/박진경기자 lucky@kwangju.co.kr

교차로 ‘꼬리물기’ 캠퍼코더에 ‘꼬리’ 잡힌다

풍암IC 등 4곳 단속 경찰청, 범칙금 부과

다음달부터 교차로에서 이른바 ‘꼬리물기’를 하다가 다른 차량의 소동까지 방해하면 캠퍼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광주 풍암IC 등 상습 정체 교차로에 캠퍼코더를 배치해 ‘꼬리물기’ 행위가 발견되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풍암IC와 백운로터리, 운전사거리, 광산IC 등 4곳의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남은 목포 전남도청입구 4거리와 여수서교4거리, 순천 조례4거리, 나주 돌고개4거리 등 21곳에서 단속이 벌어진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96곳의 교차로에 캠퍼코더가 설치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2월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주약양투어의 참배처는 **한치산 등반/옥제각/관경**

2010년 한라산 동남부코스개발 후원회
총액 92,000원 4원기준
등록금 23,000원 4원기준

한라산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연유산이자,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한라산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연유산이자,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이다.

제주약양투어 T.064-727-2977

당뇨병 알아야 낫는다!

기적 같은 당뇨 퇴치 비법! 당뇨, 원인은 알면 낫게 합니다!

1. 기적같은 당뇨 비법
2. 당뇨가 올랐을 때의 대처법
3. 예방하는 방법
4. 당뇨와 당뇨 합병증
5. 당뇨와 당뇨 합병증 예방법
6. 당뇨를 낫게 하는 비법

02-563-6668